

ESG 공시 빅뱅 이후 속도조절

: 글로벌 ESG 공시 점검

Credit/ESG 이화진

hlee@hmsec.com

Contents

I. '22년 ESG 공시 Big-Bang 이후 4년	4
II. U.S. 공시제도	8
III. EU CSRD 공시제도	20
IV. ISSB & KSSB 공시제도	30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Summary - 미국은 멈추고, 유럽은 축소하고, 한국은 지연되다

-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이변현상 증가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나, '22년 인플레이션 충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5년 이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반(反)ESG 기조 확산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다소 주춤해 짐. 하지만 '글로벌 탄소 중립 2050' 흐름은 지속되고 있으며, ISSB 기준을 도입하거나 도입 절차를 밟는 국가도 40곳 이상으로 늘어남. 규제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속도와 범위가 조정되는 국면임
- ESG의 최대 리스크는 그린워싱임. 투자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린워싱을 판단 할 수 조차 없어 정보공개는 중요함. 정보는 중요성, 비교 가능성, 투명성, 일관성을 갖춰야 기업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제대로 판단 할 수 있음. 최근에는 규제 후퇴와 소송 부담으로 기업이 ESG 성과를 의도적으로 덜 알리는 '그린허싱(Green-hushing)'도 나타나고 있어 정보 공백 자체가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음
- '22년 미국, 유럽,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는 공시 기준을 발표했으나, 이후 추진 속도는 엇갈림. 미국 SEC는 '24년 3월 기후공시 규칙을 최종 채택했으나 소송으로 시행을 중지했고, '26년 5월 규칙 전면 폐지안을 제안함(단,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첫 보고는 '26년 11월 예정). 유럽은 '26년 2월 '온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발표로 CSRD 적용 대상을 직원 1,000명 초과 ·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축소에 대상 기업이 약 80% 감소함
- 한국은 당초 '25년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을 '23년에 '26년 이후로 연기했으며, '26년 2월 KSSB 공시기준을 확정함. '26년 7월 최종안에 따라 '28년('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사업보고서 법정공시가 도입되며, 초기 3년간은 고의적 그린 워싱을 제외하고 법적 책임이 면제됨. 정보 공시 제도의 확립으로 기업 가치 판단, 그린 워싱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공시 기준 강화는 공시 대응 비용 증가와 배출량 측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수반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따라 미국 · 유럽의 규제 축소, 한국의 도입 초기 면책과 Scope 3 공시 유예 등 각국 제도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선에서 ESG 공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옴. 다만 공시 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ESG 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필요함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I. '22년 ESG 공시 Big-Bang 이후 4년

US Pauses, EU Scales back, KR Delays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ESG 공시 Big-bang · Green Washing · 소송 리스크



주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회계기준),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보고지침), CSRD(Corp.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기업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지속경영가능성보고표준)
 자료: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주요 ESG 공시 비교

- 바이든 행정부 '24년 3월 기후 공시 최종안 채택 → 기후 정보 공시 강제는 권한남용, 막대한 비용부담, 기후 예측에 대한 추측성 정보 제공과 허위공시 소송 리스크 확대 주장. 주정부와 기업들의 전방위적 소송과 법원 제동 → 법원 최종판결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발적 효력 정지 결정 → 트럼프 당선 후 SEC는 소송 방어에서 기후 공시 규정 '전면 폐지'로 기조 변화
- 다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에서는 별도의 기업 기후 공시 제도를 추진 · 시행
- EU는 기업지속가능성 정보공시지침(CSRD) 적용범위 · 시행 일정을 조정하고 지속경영가능성 보고표준(ESRS)을 간소화함. 이중 중요성과 가치사슬 기반 공시체계는 유지
- 한국은 한국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KSSB)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를 '28년(FY20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Scope3는 '31년(FY2030)부터 적용될 예정

주요 ESG 공시 비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EU CSRD	한국 KSSB
현황	2024.04 이후 규칙 효력 정지 상태	2026.09 개정 ESRS 확정 (11월 발효 예정)	2026.08 개정안 발의
주체	미국 SEC	유럽 EFRAG	KSSB, 금융위원회
통합 공시 체계	TCFD, GHG	GRI	ISSB, SASB
중요성	투자자 기반(단일 중요성)	이해관계자 기반(이중 중요성)	투자자 기반(단일 중요성)
향후 일정	SEC 폐지안 의견수렴 후 미확정	2028년(FY2027)부터 개정 ESRS 보고	2028년(FY2027)부터 단계적으로 보고

주: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GHG(Greenhouse Gas Protocol, 온실가스 프로토콜),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협의체),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자료 : Teneo, KCMI,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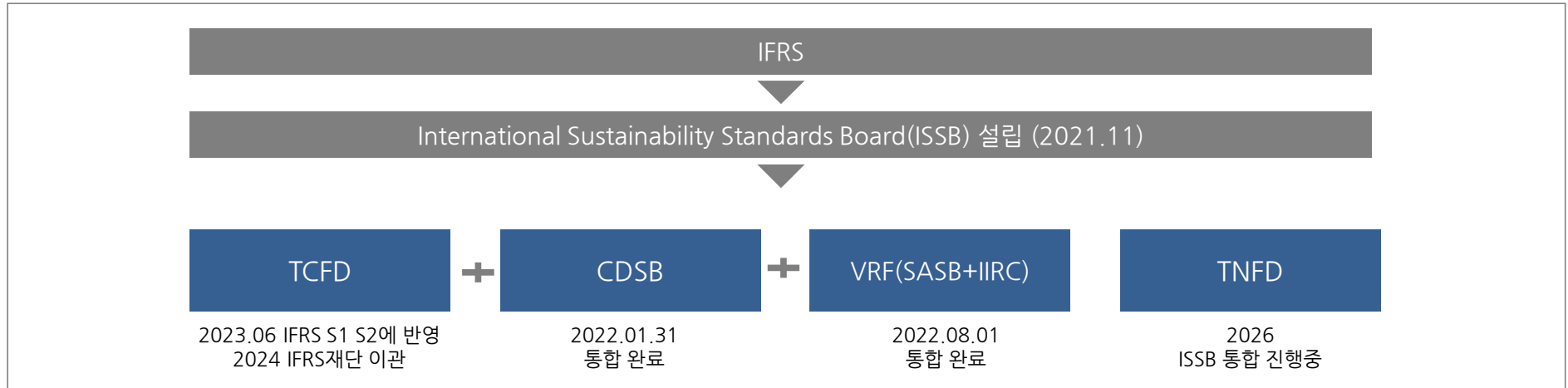


GLOBALITY
GLOBALITY

통합된 ESG 공시 표준의 필요 : ISSB 기준으로 통합 진행

- 투자 의사결정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글로벌 투자기관 증가 → 투자 기업에 ESG 정보공시 요구
- GRI, SASB, TCFD 등 주요 기관은 각각의 공시 사항 및 프레임워크를 제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부재 → IFRS재단 ISSB로 통합 진행
- '23년 6월 ISSB가 IFRS S1과 S2 공시기준 최종안 발표. TCFD 권고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TCFD역할을 IFRS재단으로 이관 요청
- TNFD 생물다양성 공시기준도 ISSB가 관련 기준 제정하면서 통합을 진행 중. '26년 10월 공개초안 발표 예정
- ISSB는 환경 사회문제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GRI는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권, 공급망, 지역사회), EU ESRS는 양방향의 이중 중대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기준으로 존재
- 국제적 통합 기준인 ISSB를 자국 제도로 안착 시키고 있음. 한국은 '26년 7월 금융위-KSSB 최종안 발표로 첫 적용 대상은 10조원 이상 기업

ESG 공시 주요 기관 IFRS로 통합



주1 :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주2 :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는 IFRS재단에 통합

주3 : VRF(Value Reporting Foundation; 가치 공시 재단)는 2021년 6월 SASB와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가 합병

자료: 대한상의, 각 기관, 언론보도,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II. U.S. 공시제도

SEC Stops, CA Moves on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안(1)

- '22년 기후 공시안은 모든 미국 상장기업에 적용. 기후 위험을 재무 지표에 포함하여 주식 공시(증권신고서, Form 10-K, 20-F)하도록 규정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탄소배출량 정보의 단계적 외부 인증 요구. Scope3 협력·납품업체 탄소배출량 포함

SEC 기후 공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Regulation S-K 기후 관련 공시	
기후가 전략, 비즈니스모델, 전망에 미치는 영향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중대한 물리적(Physical) 위험과 전환(Transition)위험으로 구분. 기업 사업전략,재무계획, 자본 배분에 미치는 영향
	기후 위험에 처한 자산의 구체적 위치. 홍수,가뭄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사업시설이나 자산
기후 리스크에 대한 지배구조 및 감독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 감독 및 경영관리 절차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Scope 1,2 를 포함하여 Scope 3 수준의 배출량까지 단계적으로 공시 요구
Regulation S-X 재무제표 주식 공시	
재무영향 지표(Financial Impact Metrics)	심각한 기상이변,자연조건영향, 전환 활동 재무제표항목 영향(긍정 부정의 절대값 합, 재무제표항목의 1% 이상)
지출 지표(Expenditure Metrics)	기후 사건, 전환 활동 관련 지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목표나 기후 관련 선언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 및 비용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	기후 관련 사건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

자료 : SEC, PwC,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안(2)

- 기업들은 추정의 어려움, 기업 기밀 보호 등 이견을 제시. Scope 3 관련 통제 범위 밖에 있음을 강조하며 공시 면제를 주장
- Scope 3 업스트림(재료조달,처리,생산) & 다운스트림(운송,판매, 제품폐기물처리) 미래예측 정보(Forward-looking information) 제공 →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 주석 공시 여부 판단
-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중 Scope 3에서 70~80% 배출(석유회사 90%)하고 있어 Scope 3 공개의 필요성

Scope 1~3 정의

범위	배출	내용
Scope 1	직접배출	사업장, 공장, 석유 정제 설비 등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배출
Scope 2	간접배출	사업장 및 정제설비에서 사용하는 전기(동력)생산과정에서 배출
Scope 3		밸류체인 전반(물류,출장,공급망, 제품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자료 : SEC, ESG혁명이 온다,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축소

- SEC는 '22년 기후 공시 규칙을 제안했으나, 기업 부담과 법적 권한 논란 속 '24년 최종안에서 Scope3를 제외하고, Scope1·2 공시도 중대성 기준으로 축소
- 제3자 인증 역시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LAF와 AF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AF에는 제한적 입증만 요구하는 등 부담을 완화. 기존 '25년 제한적 인증, '27년 합리적 인증 받도록 한 것을 각각 '30년과 '34년으로 연기됐고 현재는 이것조차도 효력정지 상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안 및 확정안 비교

구분	2022.03 공시안	2024.03 확정안
공시 대상	SEC 등록기업 전반에 적용	기본 공시: SEC 등록기업 전반 Scope 1,2: LAF 및 AF로 한정
Scope 1·2	모든 등록 기업에 공시 요구	LAF 및 AF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공시
Scope 3	중요하거나 감축 목표에 포함된 경우 공시 소규모 회사(SRC)는 면제	공시 의무 전면 삭제
제3자 인증	LAF: 제한적(2025년, FY2024) → 합리적(2027년, FY2026) AF: 제한적(2026년, FY2025) → 합리적(2028년, FY2027)	LAF: 제한적 인증(2030년, FY2029) → 합리적 인증(2034년, FY2033) AF: 제한적 인증(2032년, FY2031)
경과	2022.03 제안 → 기업·투자자 의견이 크게 갈림	2024.03 최종 규칙 확정 → 2024.04 효력 정지 → 2026.05 폐지 제안

주 : LAF(Large Accelerated Filer, 유통주식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기업; 대기업; 대형가속신고기업), AF(Accelerated Filer, 유통주식 시가총액 7,500만~7억 달러 미만 기업; 중견기업; 가속신고기업), SRC(Smaller Reporting Company, 유통주식 시가총액 2.5억 달러 미만 또는 7억 달러 미만인 연매출 1억 달러 미만인 기업; 소규모 기업)

자료 : SEC, KPMG,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22년 공시안 기준 미국 SEC 기후 공시 시행 일정(미시행)

2022년 공시안 기준 미국 SEC 기후 공시 시행 일정

적용시기	대기업(LAF)		중견기업(AF)		소규모기업(SRC)	
	범위	인증	범위	인증	범위	인증
FY 2023 (2024년)	Scope 1&2					
FY 2024 (2025년)	Scope 3	제한적 인증	Scope 1&2			
FY 2025 (2026년)			Scope 3	제한적 인증	Scope 1&2	
FY 2026 (2027년)		합리적 인증				
FY 2027 (2028년)				합리적 인증		

자료 : SEC,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24년 확정안 기준 미국 SEC 기후 공시 시행 일정(효력정지상태)

2024년 확정안 기준 미국 SEC 기후 공시 시행 일정

적용시기	대기업(LAF)		중견기업(AF)		소규모기업(SRC)	
	범위	인증	범위	인증	범위	인증
FY 2026 (2027년)	Scope 1&2					
FY 2027 (2028년)						
FY 2028 (2029년)			Scope 1&2			
FY 2029 (2030년)		제한적 인증				
FY 2030 (2031년)					면제	
FY 2031 (2032년)				제한적 인증		
FY 2032 (2033년)						
FY 2033 (2034년)		합리적 인증				

자료 : SEC,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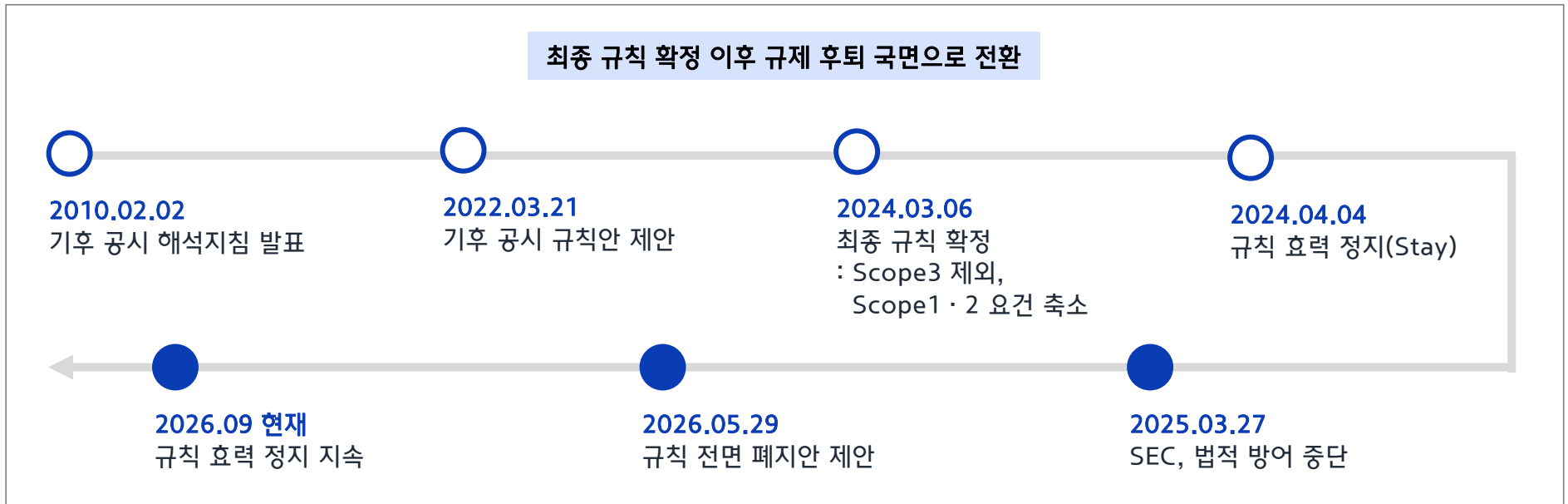


GLOBALITY
GLOBALITY

'26년 미국 SEC 기후 공시는 멈추다

- '22년 3월 SEC는 회사 경영과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공시 확대 규칙(Rule) 제안
- '24년 3월 최종규칙을 확정. 최종 규칙은 기존안보다 축소되어,
 - 1) Scope3 공시 제외
 - 2) Scope 1, 2 공시
 - 3) 대기업(LAF), 중견기업(AF) 대상
 - 4) 중대성(materiality)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공시
- 최종 규칙 채택 이후 주정부들과 기업들의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서 SEC는 자발적으로 '24년 4월 규칙 효력을 정지(stay)를 결정. '25년 3월 법정 방어도 중단. 이후 '26년 5월 SEC는 기후공시 규칙을 전면 폐지(rescind)하는 안을 제안, '26년 9월 현재 폐지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효력 정지된 상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관련 타임라인



자료 : SEC, KPMG,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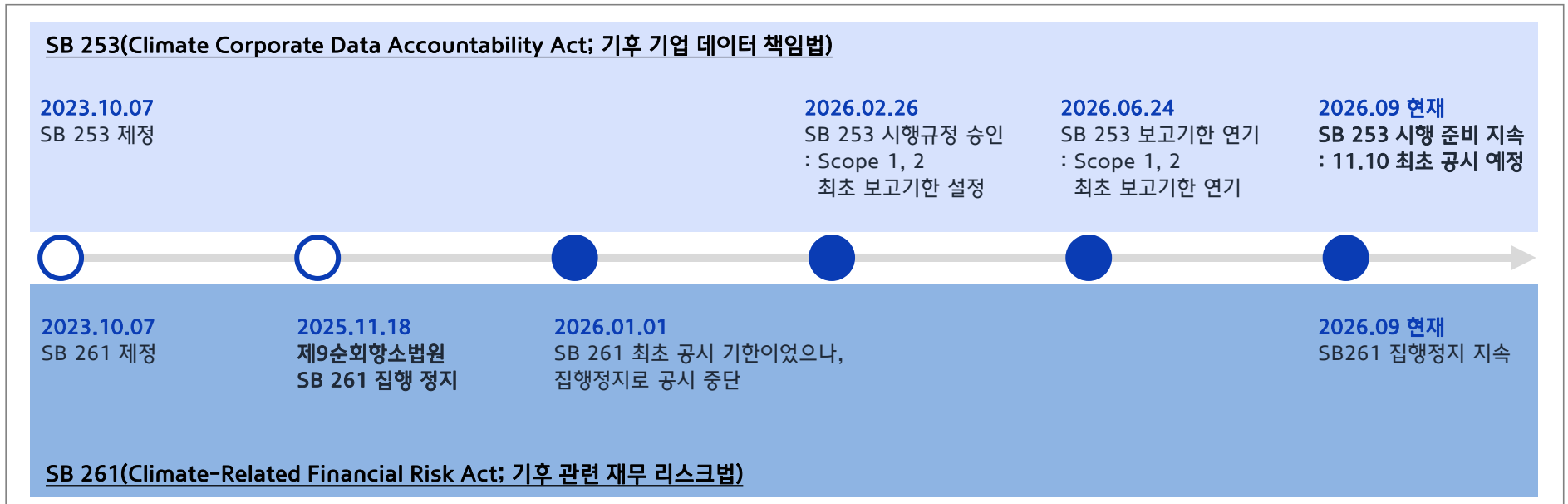


GLOBALITY
GLOBALITY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후 공시

- 캘리포니아(CA)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기후정책 선두 주자. '23년 SEC 기후 공시가 표류 중 일 때 '23년 10월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는 자체적 기후공시 법안 'SB 253(온실가스 배출 공시)'과 'SB 261(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공시)'을 제정
- SB 253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10억 달러 초과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 Scope 1·2 최초 보고기한은 '26년 11월 10일이며(기존 8월 10일에서 연기), Scope3는 '27년부터 적용 예정(세부 내용은 추후 확정 예정)
- SB 261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5억 달러 초과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기후 리스크 보고서 공개. TCFD나 IFRS S2 등에 따른 기후 관련 재무위험 및 대응조치를 공시하도록 요구
- '24년 1월 주요 기업과 단체들이 두 법률을 상대로 소송 제기, '25년 2월 집행정지 신청, '25년 11월 연방항소법원이 SB 261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명령. 이에 '26년 1월 1일이었던 SB 261의 집행이 현재 의무 공시 중단된 상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후 공시 관련 타임라인



주 : SB(Senate Bill; 상원 법안) 253은 캘리포니아 기후기업 데이터 책임법(Climate Corp. Data Accountability Act; 온실가스 배출 공시), SB 261은 기후관련 재무 리스크법(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 공시)
 자료 : CABR(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KPMG, 김·장법률사무소, 임팩트온, 현대차증권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후 공시 : 온실가스 배출 공시 Scope 1,2 우선

- SB 253의 Scope 3 공시의 경우 '27년(FY2026)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세부 시행방식은 현재 규칙 제정 중. Scope 3 단계적 도입 방안 중 초기 의무 범위를 활용도가 높은 5개 범주로 제한하는 안이 제시. 5개 범주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Category 1),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Category 3), 사업장 발생 폐기물(Category 5), 출장(Category 6), 임직원 통근(Category 7)로 GHG 프로토콜이 정의한 15개 Scope3 카테고리 중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산정해 온 것
- SB 261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등 기업의 영업, 재무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재무위험과 이에 대한 완화, 적응 조치를 2년마다 공시하도록 요구. 다만 현재 의무 집행은 중단되고 자율 제출만 진행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후 공시 관련 주요 내용

구분	SB 253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SB 261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법
목적	탄소 배출량 투명성 강화	기후 재무 리스크 평가 강화
적용 대상	CA에서 사업하는 미국 사업체 + 연매출 10억 달러 초과	CA에서 사업하는 미국 사업체 + 연매출 5억 달러 초과
핵심 공시 내용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재무위험 및 완화·적응 조치
공시 주기	매년	2년
공시 기준	GHG Protocol 기반	TCFD, ISSB 등 국제기준
최초 적용	Scope 1·2: 2026.11.10 최초 공시 예정 Scope 3: 2027년(FY2026). 세부방식 규칙 제정 중	2026.01.01 최초 공시 예정이었으나, 현재 집행정지 상태
제3자 인증	Scope 1·2: 제한적 인증(2027년) → 합리적 인증(2030년) Scope 3: 제한적 인증(2030년)	제3자 인증 의무 없음

자료 : CABR, KPMG, 김·장법률사무소, 임팩트온,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미국 뉴욕 주 기후 공시

- 뉴욕주도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나 최종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님
- 온실가스 배출 공시법안 S9072A(온실가스 배출 공시)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연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Scope1·2·3 배출량 공시를 요구. '26년 2월 10일 뉴욕 주 상원을 통과, 현재 하원 계류 중
- 뉴욕 주 환경보전국은 '27년 12월 31일까지 S9072A 관련 시행 규정을 채택하도록 규정, 법안이 현행대로 확정될 경우 '28년(FY2027)부터 Scope 1·2 배출을 먼저 공개하고 '29년(FY2028)부터 Scope 3 공시를 시작하도록 규정
- 별도로 연매출 5억 달러 초과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위험과 대응조치를 2년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S3697A(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공시)도 추진 중이며, 현재 아직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미국 뉴욕 주 기후 공시 관련 주요 내용

구분	S9072A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S3697A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법
목적	온실가스 배출정보 투명성 강화	기후 관련 재무위험 및 대응정보 공개
적용 대상	NY에서 사업하는 미국 사업체 + 연매출 10억 달러 초과	NY에서 사업하는 미국 사업체 + 연매출 5억 달러 초과
핵심 공시 내용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및 완화, 적응 조치
공시 주기	매년	2년
공시 기준	GHG Protocol 기반	TCFD, ISSB 등 국제기준
최초 적용	Scope 1·2: 2028년(FY2027) 최초 공시 예정 Scope 3: 2029년(FY2028)부터 공시 예정	2028년 1월 1일 최초 공시 예정
제3자 인증	Scope 1·2: 제한적 인증(2028년) → 합리적 인증(2032년) Scope 3: 향후 결정	인증 의무 없음

주 : S9072A(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온실가스 배출 공시), S3697A(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Reporting;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법;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공시)
 자료 : 뉴욕주, 임팩트온, 법무법인 화유,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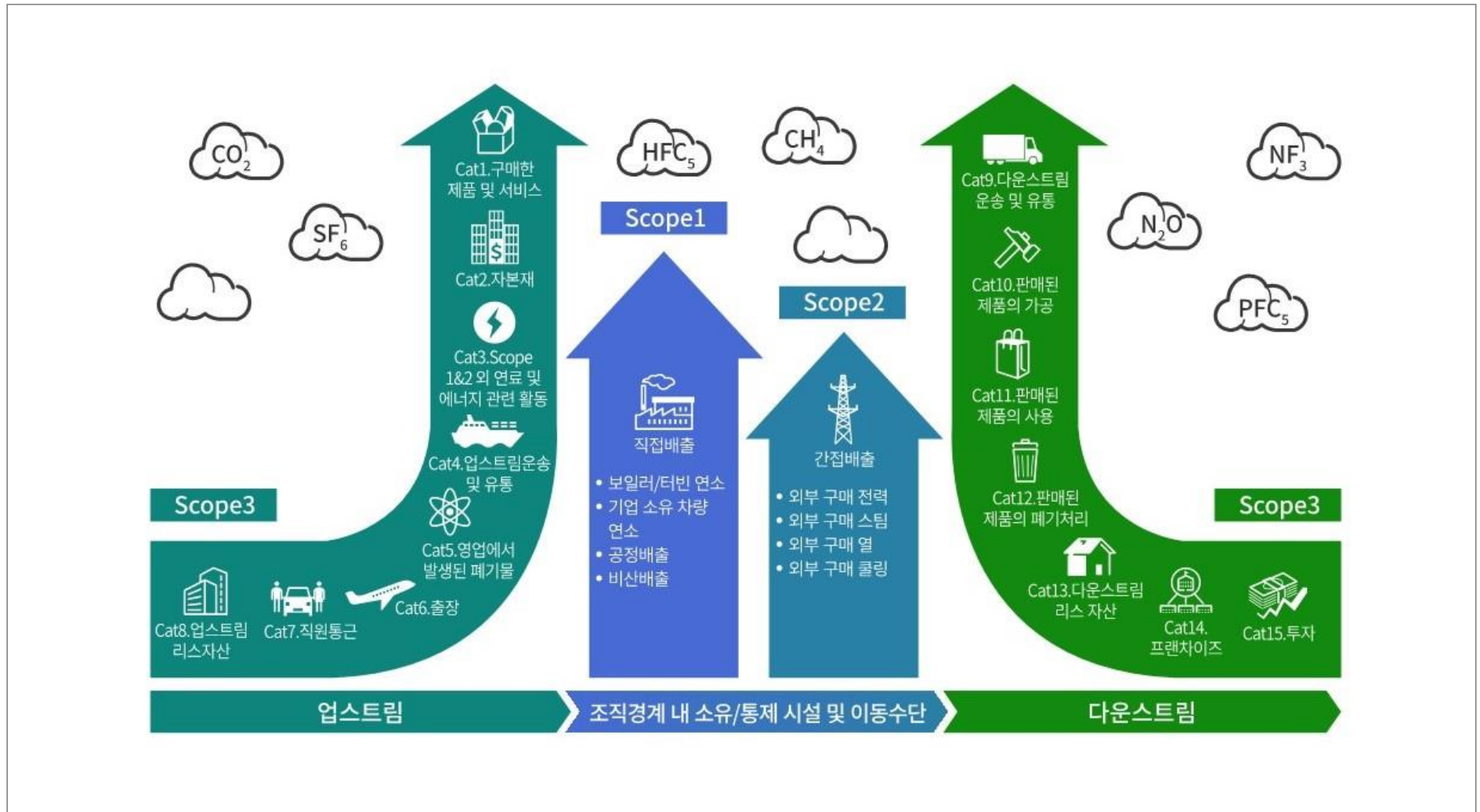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참고: GHG Protocol 분류에 따른 Scope 3 카테고리

GHG Protocol 분류에 따른 Scope 3 카테고리



자료 : 환경책임투자플랫폼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참고: GHG Protocol 분류에 따른 Scope 3 카테고리

GHG Protocol 분류에 따른 Scope 3 카테고리

영역	카테고리	정의
업스트림 (생산부문)	①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이 구매한 제품/서비스의 모든 원재료 추출, 생산, (보고 기업까지의) 운송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자본재	기업이 구매한 자본재의 모든 원재료 추출, 생산, (보고 기업까지의) 운송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Scope 1,2에 포함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④ 운송 및 유통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운송수단에 의한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③ 포함된 연료 제외)
	⑤ 영업에서 발생된 폐기물	기업이 소유 및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및 처리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⑥ 출장	기업이 소유 및 운영하지 않는 이동수단에 의한 직원 출장 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⑦ 직원 통근	기업이 소유 및 운영하지 않는 이동수단에 의한 직원 통근 시 발생하는 배출량
	⑧ 임대 자산	기업이 보고 연도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임대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배출량 중, 보고 기업의 Scope 1, 2에 포함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량
다운스트림 (운송부문)	⑨ 운송 및 유통	기업이 소유 및 운영하지 않는 차량 및 시설에 의한 판매제품의 운송 및 유통 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⑩ 판매된 제품의 가공	기업이 판매한 중간제품 제3자가 후속 처리 및 가공 시 발생하는 다운스트림 배출량
	⑪ 판매된 제품의 사용	기업이 판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출량
	⑫ 판매된 제품의 폐기처리	기업이 보고 연도에 판매한 제품의 수명 종료 단계에 따른 폐기물 처분 및 처리에 의한 다운스트림 배출량
	⑬ 임대 자산	기업이 해당 보고 연도에 다른 기업의 임대자산 운영으로 인한 배출량 중, 보고 기업의 Scope 1, 2에 포함되지 않은 배출량
	⑭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점(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프랜차이즈업의 경우 해당)
	⑮ 투자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배출량

자료 : 환경책임투자플랫폼,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III. EU CSRD 공시제도

From Wider to Narrower, but Deeper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EU ESRS 공시기준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 ESRS 주요 내용은 보고를 위한 공통 표준 2가지(ESRS1, ESRS2)와 주제별 표준10가지 총 12개로 구성(13개에서 축소)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영향 중요성)과, 환경사회 이슈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재무 중요성)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포함.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
- '22년 EFRAG 초안에서 G1(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이사회구성과 역할, 다양성, 경영진 보수,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관리)와 G2(사업행동: 기업문화, 반부패, 로비활동 등)로 분류 → 개정을 통해 G1은 ESRS2 일반공시로 이동. 기존G2(사업행동)이 G1으로 변경

EU ESRS 내용

공통 표준	주제별 표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ESRS 1 일반요구사항	ESRS E1 기후변화	ESRS S1 내부 인력	ESRS G1 사업행동
ESRS 2 일반 공시	ESRS E2 오염	ESRS S2 공급망 내 근로자	ERSR G2 삭제 기존 G1 → ESRS2 통합 G2 → G1
	ESRS E3 물과 해양자원	ESRS S3 지역사회	
	ESRS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ESRS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ESRS E5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주 : ESRS1 은 보고서 작성원칙에 대해 서술. ESRS2는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초안의 주제별 표준내 ESRS G1이 공통표준 ESRS2 필수 공시로 이동함. 주제별 표준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택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 EFRAG, EY,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EU ESRS 개정 배경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 관세전쟁, 미국 규제 완화 등 에너지 위기와 EU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24년 9월 드라기 보고서, '24년 11월 부다페스트 선언에서 '보고의무 간소화' 요구
- EU 기업 경쟁력 제고와 규제, 보고 부담 완화를 위해 CSRD · ESRS 간소화 패키지를 추진. '25년 EU 집행위에서 기업부담 완화 위한 법개정 '옴니버스 I'을 발표
- CSRD 1차 보고 기업의 ESRS 적용 경험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필수 데이터포인트를 대폭 축소하되, 이중 중요성 원칙은 유지
- 제한적 인증 체제도 유지하되, 합리적 인증으로의 의무적 전환은 삭제하기로 결정

EU 지속가능성 공시 간소화 배경과 제도 반영

구분	원인 쟁점	제도 반영
경쟁력 위기론	EU 기업의 규제 비용이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 확대	옴니버스 패키지로 CSRD 적용 대상 축소 및 ESRS 공시요건 간소화 추진
현장 부담 확인	1차 보고 기업의 경험과 공개협약에서 과도한 데이터포인트 및 절차 부담 제기	개정 ESRS에서 필수 데이터포인트 감축, 자발적 공시 삭제
중소기업 전가 우려	대기업의 공급망 자료 요청이 비공시 중소기업으로 전가될 가능성	직원 1,000명 이하 가치사슬 기업에 대한 Value Chain Cap 및 VS 도입

자료 :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EU 기후 공시 제도 변화 : Wider, Narrower, Deeper(1)

- 에너지 안보(화석연료 높은 의존도, 재생에너지 전환 중요), 규범 주도권, 이해관계자자본주의(주주이익 외 노동자,지역사회,환경 중요성) 등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EU는 '14년 기업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보고지침)를 제정하고, '18년부터 시행
- '22년 EU 이사회와 의회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최종안에 합의. CSRD는 기존 NFRD에 정보 비교 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을 보완하고, 적용범위확대 필요성을 반영해 NFRD를 개편한 것
-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25년 EU 집행위에서 간소화 개정한 '옵니버스 I(CSRD 개정 포함)'을 발표

EU 기후 공시 제도 변화

	NFRD	기존 CSRD, ESRS	개정 CSRD, ESRS
의무해당기업	- 근로자 수 500명 초과 대규모 상장사 및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	- 종업원 250명, 자산 2,500만 유로, 매출 5천만 유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EU기업 - 역대 매출 1.5억 유로 초과하고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EU기업	- 종업원 1,000명 초과 &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하는 EU기업 - 2년 연속 역대 매출 4.5억 유로 초과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EU기업
포함 기업 수	약 11,700	약 50,000	5,000~10,000 (추정기관마다 상이)
보고사항	- 환경보호 - 사회 책임 및 근로자 대우 - 인권 - 부패방지 - 이사회 내 다양성(나이/성별/교육/직업 배경)	- NFRD 보고사항 - 사회/인적/지적 자산 현황 - 장기적 ESG 목표 및 정책 -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실사 - SFDR 및 EU 녹색분류체계 규정에 따른 보고 - 이중 중요성 강조	- 지속가능성 영향, 위험, 기회 - 전략, 사업모델 - 거버넌스, 위험관리 - 정책, 목표, 성과지표 - 가치사슬 정보 - 이중 중요성
제3자 인증	인증 의무 없음	제한적 인증 → 합리적 인증 전환 예정	제한적 인증 유지, 합리적 인증 전환 의무 삭제
보고 방법	정해진 체계 없이 연간 보고	서문과 보고서를 XHTML 형식으로, 디지털 태그를 포함해 연간 보고	경영보고서 내 연간 보고

자료 : KOTRA,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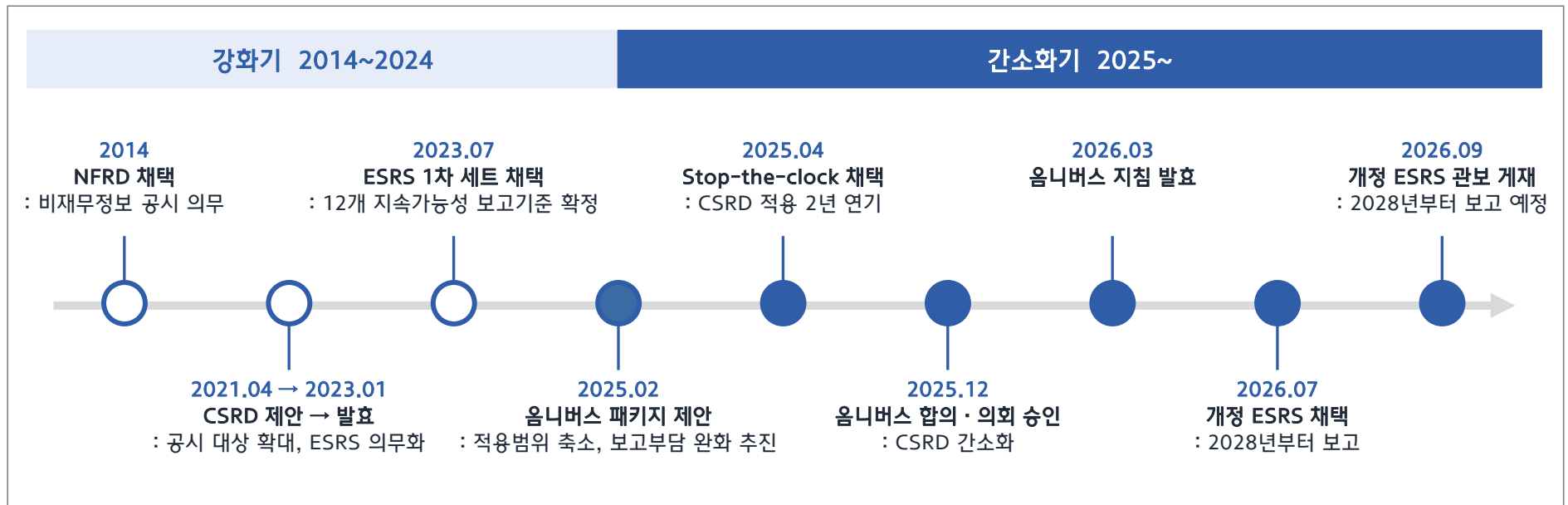


GLOBALITY
GLOBALITY

EU 기후 공시 제도 변화 : Wider, Narrower, Deeper(2)

- '14년 EU는 기업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NFRD를 제정, '18년부터 500명 초과 상장사·은행·보험사 등에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
- '22년 6월 21일 EU 이사회와 의회는 CSRD 최종안에 합의, 적용대상을 확대, ESRS 기반 표준화, 이중 중요성 등을 도입
- '25년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CSRD포함) 제안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 '26년 3월 발효(채택→관보게재→발효→회원국 국내법전환)
- 기존 CSRD 약 5만개 보고 대상기업 중 80%가 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CSRD 대상 기업이 공시를 이유로 중소 협력사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으로 '자발적 보고 기준 (Voluntary Standard)' 마련
- '26년 7월 3일 '개정 ESRS' 채택. 공시 의무가 없는 비적용 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기준(Voluntary Standard)'도 채택이 됨
- '26년 9월 관보게재로 확정(위임규정: 채택→심사→관보게재→발효 및 적용), 발효 및 적용은 '28년(FY2027) 시행을 앞두고 있음

EU CSRD 공시 관련 타임라인



주1: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 CSRD, CSDDD, EU Taxonomy 등 지속가능성 공시, 실사 규제를 간소화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 유예한 법안 패키지)

주2 : VSME(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no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VS;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기준),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김·장법률사무소,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EU CSRD 개정안 :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 EU는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지침에 따라 기존 ESRS 개정하여 적용 대상 축소, 공시 내용 자체의 간소화를 추진. 동시에 CSRD 비적용 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 기준을 채택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구분	기존 CSRD(2024년 기준)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2025.02)	최종안(2026.03)
CSRD 대상	- 종업원 250명, 자산 2,500만 유로, 매출 5천만 유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EU 기업 - 역내 매출 1.5억 유로 초과하고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EU기업	- 종업원 1,000명 초과 & 매출 5천만 유로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초과하는 EU기업 - 역내 매출 4.5억 유로 초과 비EU기업 - EU 상장 SME 제외	- 종업원 1,000명 초과 &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하는 EU기업 - 2년 연속 역내 매출 4.5억 유로 초과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EU기업 - EU 상장 SME 제외
시행 일정	2025년(FY2024)부터 순차 확대	2년 연기(2027년, FY2026)	2028년(FY2027)
공시 기준(ESRS)	이중중요성 기반 공시	공시 기준 간소화 이중중요성 기반 공시 유지	공시 필수 항목 축소 이중중요성 기반 공시 유지
가치사슬 부담	대기업의 가치사슬 기업 정보요구 발생	직원 1,000명 이하 가치사슬 기업 보호를 위한 Voluntary Standard 제안	직원 1,000명 이하 가치사슬 기업에 대해 VS를 정보요구 상한으로 적용
제3자 인증	제한적 인증 → 합리적 인증으로 강화 예정	제한적 인증 유지 합리적 인증 전환 삭제 제안	제한적 인증 유지 합리적 인증 전환 삭제

주 : 최종안의 비EU 기업 일정 기준은 EU 자회사 또는 지점의 전년도 순매출이 2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김·장법률사무소,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개정된 ESRS 주요 내용(1) 단순화 · 호환성

- 개정 방향의 핵심은 중요 정보 중심으로 전환. 기존 ESRS는 모든 세부 이슈를 하나씩 검토해서 중요한 것을 골라내는 상향식이었다면 하향식은 큰 틀에서 회사의 전략, 사업 모델 등 중요 주제와 모호한 부문만 세부 분석
- 중대성 판단 · 공시 범위는 단순화. CSDDD, ISSB와의 호환성 강화

개정 ESRS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하향식 중대성 평가 도입	기업의 전략 · 사업모델 · 섹터 · 지역 · 가치사슬을 먼저 분석하고, 주제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 허용. 해당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개별 영향·위험·기회(IRO) 추가 검토
공정한 표시(Fair Presentation) 원칙 명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체가 실제 상황을 왜곡 없이 충실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공정한 표시 명확히 함. 체크리스트식 공시(개별)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단위로 판단
중대성 평가 수준과 보고 단계의 세분화 수준 분리 명확화	중대성 평가 시, 리스크 또는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 또한 중대성 평가 단계에서 적용한 세분화 수준을 보고 단계에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음을 명시
예상 재무영향 보고 요건 완화	예상 재무영향 산정 시 추정치 사용을 인정하고 추정치 수정을 오류로 보지 않고 허용. 특정 정보의 공개가 기업의 영업상 · 경쟁상 지위(commercial position)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관련 정보 생략 허용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의 정합성 제고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개념 · 용어를 CSDDD 체계에 맞추어 정렬해 제도간 정합성 강화. CSDDD 실사에서 식별한 부정적 영향 · 이해관계자 참여 · 완화조치 정보를 ESRS 중대성 평가 · 공시에 연계 가능
인권 · 차별 사건 보고기준 명확화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경우, 객관적 · 사실적 · 검증 가능한 정보로 뒷받침되는 입증된 사건만을 공시 대상으로 규정. 진행 중인 소송이나 기업이 내부적으로 등록한 사건이라도 단순히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입증되었다거나 공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자료 : 김 · 장법률사무소,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개정된 ESRS 주요 내용(2) 범위 축소 · 기업 판단 · 투명성

- 측정이 어렵거나 본업과 무관한 보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것, 부족한 부분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개선
- '27년(FY2026)은 전환기간으로, 기업은 기존 ESRS를 계속 적용하거나 일부 개정 완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개정 ESRS 전체를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28년(FY2027)부터는 개정 ESRS가 본격 적용될 예정

EU ESRS 관련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주요 개정사항	핵심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접근법	보고 경계 기준 명확화	재무통제 방식을 기본 접근법으로 하되, 기업 상황과 공시 목적에 따라 운영통제 방식 또는 지분율 방식도 대안적으로 적용 가능
1.5°C 경로 미부합 기후 전환계획	추가 공시요건 신설 투명성 강화	기후 전환계획이 '1.5°C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목표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를 명확히 공시해야 함. 관련 벤치마크와의 비교 및 향후 전환 방향 방식도 설명 필요
미세플라스틱 보고대상	공시 범위 축소	기존에는 1차·2차 미세플라스틱(원재료 자체가 미세) 모두 공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 1차 미세플라스틱만 공시하고 2차 미세플라스틱(마모로 인한) 공시요건은 삭제
오염물질 보고대상 결정	기업의 판단 범위 확대	기존에는 EU가 정한 기준치를 넘을 경우 의무 공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기준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기업이 사업활동·업종을 고려해 보고대상을 결정
업종별 우려물질 보고대상	업종별 공시대상 차등화	화학 업종은 우려물질(SoC) 및 고위험우려물질(SVHC) 모두 보고하도록 강화, 비화학 업종은 SVHC만 보고하도록 완화

주 : 재무통제는 연결재무제표기업, 운영통제는 실제 사업장 운영여부, 지분율 방식은 지분비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은 사람이나 환경에 해로운 물질 전반, 고위험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은 암을 유발하는 등 가장 위험한 물질로 분류된 것
 자료 : 김 · 장법률사무소,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자발적 보고기준(VSME): 보고 의무 없는 가치사슬 내 기업 상한선

- '24년 12월 EFRAG이 EU집행위 제출. '26년 7월 EU 집행위는 자발적 보고 기준을 채택. VSME는 CSRD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 CSRD 보고 대상기업이 가치사슬 내 직원 1,000 명 미만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범위의 상한(Value Chain Cap)으로 기능
- CSRD 보고기업은 CSRD 보고 목적상 가치사슬 내 직원 수 1,000명 미만 기업에 제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한은 CSRD 보고 목적의 정보요청에 한정되고, 그 외 다른 목적의 정보 요청(지속가능보고서, 공급망 실사, 은행 심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EU VSME 주요 내용

구분	성격	주요 내용
Basic Module	기본 공통정보 중심의 최소 보고체계	일반정보, 지속가능성 정책·실천, 에너지·GHG, 오염·생물다양성·물, 자원·순환 경제·폐기물, 인력·안전보건·보수·단체교섭·교육, 반부패 관련 벌금 및 유죄 판결
Comprehensive Module	외부 이해관계자의 추가 정보 요구에 대응하는 확장 보고체계	사업모델·전략, 추가 정책·목표, Scope 3 고려, 감축목표·기후리스크, 추가 인력·인권 정보, 민감업종 매출,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구성 등

주: VSME(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no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김 · 장법률사무소,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비EU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40a)

- EFRAG은 유럽내 일정 규모 이상의 비EU기업도 공정성 차원에서 공시하도록 기준을 마련. '26년 7월 23일 비EU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공시 기준 공개초안 ESRS-40a를 발표, '26년 10월 31일까지 의견수렴. 이후 '27년 1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 '27년 중반 이후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최초 보고는 '29년(FY2028)
- 공시 대상은 이중 중요성 아닌 영향중요성(회사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정
- 한국 모기업의 EU 내 종속기업 또는 지점이 보고서를 공개, 접근 가능하게 할 책임. 즉, 의무 이행주체는 EU 자회사 혹은 지점이나, 보고서 내용은 한국 모기업 그룹 전체로 실질적인 준비 의무는 한국 모기업

비EU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40a)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1. EU 내 순매출액이 최근 연속 2개 회계연도 각각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면서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①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액이 2억 유로를 초과하는 EU 내 종속기업을 보유 ② EU 내 지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액이 2억 유로 초과	
주요 내용	공시할 정보의 근거	공시 대상을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으로 한정. 재무적 중요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보고경계	혼합 접근법(Mixed Approach): 기후변화(E1)에 대해서는 글로벌 영향(글로벌 전체 자회사)기준으로 보고하되,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EU 관련 영향만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음
	참조에 의한 정보 편입 허용	다른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이미 작성된 정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조에 의한 편입(incorporation by reference) 방식으로 재작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단계적 완화 규정	- 첫 회계연도: 비교연도 정보와 근로자 관련 일부 데이터포인트 생략 가능 - 첫 2개 회계연도: 생물다양성(E4), 가치사슬 근로자(S2), 영향 받는 지역사회(S3), 소비자(S4) 전체 생략 가능 - 첫 3개 회계연도: 가치사슬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 확보 노력, 미확보 사유 및 향후 확보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제외 가능, 우려물질 관련(E2-5) 정량 정보는 생략 가능

자료 : 김 · 장법률사무소,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IV. ISSB & KSSB 공시제도

ISSB: Wider and Stronger, KSSB: Later and Deeper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ISSB 공시제도: IFRS S1 일반공시원칙 & IFRS S2 기후관련 공시

- IFRS재단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 <IFRS S 1 일반공시원칙>와 <IFRS S 2 기후관련 공시> '22년 3월 초안, '23년 6월 최종안 발표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일반요구사항 IFRS S1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재무 정보, IFRS S2는 기업의 기후관련 리스크(Scope 1~3포함) 재무정보 공개를 요구. 공시 기준은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SASB 기준의 산업별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 확장시킨 것
- '25년 12월 Scope3 관련 금융사 배출량 보고 시, 투자기업 전체가 아닌 자산 및 중요성 우선 순위, 데이터수집 가능여부, 투자 규모 등 고려

ISSB Time-table

일자	내용
2020.09	ESG 공시 표준화를 위한 GRI, SASB, IIRC, CDSB, CDP 등 기관 협업 성명 발표
2021.03	IFRS 재단 이사회,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설립 방향 발표
2021.04	협약서에 대한 피드백을 요약한 피드백 성명서 발표 ISSB 설립 수용을 위한 IFRS 재단 정관 개정 공개 초안 발표
2021.10	ISSB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 및 최종제안서를 완료한다는 방침
2021.11	COP26에서 ISSB 설립 공식화. CDSB, VRF 통합 발표
2022.03	IFRS 재단과 GRI의 협력 약정 체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2022.07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
2023.06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발표(IFRS S1, IFRS S2)
2023.07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FRS S1,S2 지지 선언
2024.01	IFRS S1, IFRS S2 각국 도입
2025.12	IFRS S2 Scope 3 관련 일부 개정(GHG Protocol 카테고리 중 15 금융배출의 보고 범위 명확화 등 부담 완화)

자료 : IFRS,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ISSB 공시제도 주요내용

- ISSB 공시 기준은 TCFD의 권고안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네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SASB 산업별 지표를 통합 확장
- 금융업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공시를 추가. 최종안에서는 기준 완화
- 중대성(Materiality): S1, S2 모두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
- 가치사슬(Value Chain): 사업 모형, 운영 관련된 외부환경 · 모든 활동 · 자원 · 관계를 의미하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공시

ISSB 주요 내용

구분	S1 일반 요구사항	S2 기후관련 공시
기반 이니셔티브	TCFD, SASB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투자자, 채권자 등)의 기업가치평가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네 영역으로 이루어짐	
	투자 의사결정 및 기업가치 평가 시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 공시 요구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11개 산업부문, 68개 개별산업 지침 참고사항) 제시
특징	재무제표의 보고기업(연결실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Scope 3 배출량까지 공시
최종안 경과조치(첫해 완화) '25년 변경사항	보고 첫해 S2만 보고가능, 재무제표 동시 공시에 대해서 첫해는 차년도 반기 보고서 제출까지 연기 가능	Scope 3 1년간 유예 및 첫해 GHG 아닌 기존 측정법허용 '25년 금융배출량 산정 기준완화

자료 : IFRS, 금융위,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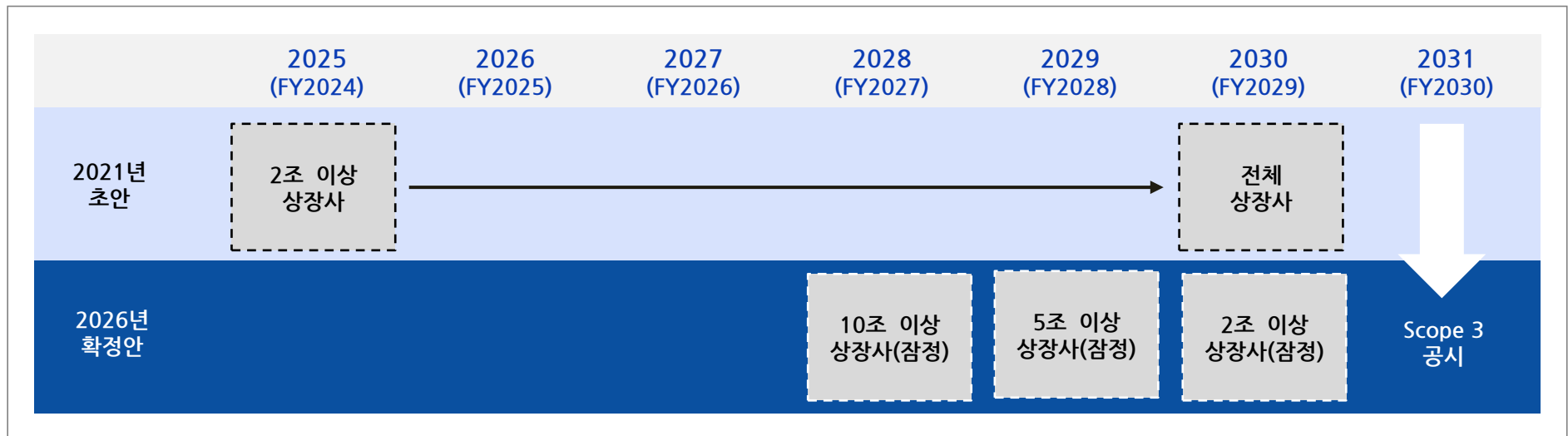


GLOBALITY
GLOBALITY

'22년 당시 국내 ESG 공시 계획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4조2 제1항) : 2017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대상 자율공시 도입. '19년 공시 의무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 '22년부터 1조원 → '24년 5천억원 → '26년 전체 상장사 ('25년 7월 공시규정 개정안승인)
- 금융위원회 · 금감원 · 한국 거래소는 '21년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와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활성화 및 단계별 의무화 계획에 관한 내용 마련
- '22년 당시 계획은 '25년부터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이며, '30년 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전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3년 금융위는 도입시기를 '25년에서 '26년 이후로 연기
- '22년 말 ISSB 등 국제 공시 표준이 확정 예정이었으나, ISSB는 '23년 6월 확정. KSSB는 '26년 2월 최종안 발표
-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26년 2월 초안, 7월 확정안 발표
- 지속가능보고서의 공시대상은 '22년 2조원 이상 → '26년 2월 30조원으로 대상 축소 → 확정안 10조원이상으로 대상 확대

'22년 Vs. '26년 ESG 공시 변화



자료 : 법제처, KRX,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국내 ESG 공시(1): 대상확대 및 법정공시 조기 전환

-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6년 2월 IFRS S1,S2를 바탕으로 공시기준 제1호(일반)과 제2호(기후) 최종안 발표
- '26년 7월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 발표
- '26년 8월 4일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자통법) 개정안 발의
- '28년(FY2027)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 의무화를 적용. '29년(FY2028)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후 '30년 2조원 이상까지 확대를 검토
- 2월 초안 30조원 이상 기업보다 강화된 10조원 이상이며, 거래소 자율공시 과정 없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추진
-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서 3년간 면책을 적용하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기후 공시 우선 의무화(Scope 1·2포함), Scope 3는 3년 유예(10조원 이상 기업 '31년부터)

국내 ESG 공시 제도 추진경과



주 :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정책 합의 → 자통법 개정안 발의 → 상임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공포 → 시행 (효력 발생) → 하위규정 시행령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자료 : 금융위, 한국회계기준원,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국내 ESG 공시(2): 단계적 적용

- '21년 정부가 일정을 제시한 뒤로 5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26년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회의'에서 발표한 초안 대비 공시 의무화 적용대상과 일정이 대폭 확대됨
- '28년(FY20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0조원 이상으로, '29년(FY2028)에는 5조원 이상으로 적용대상 확대. '30년(FY2029) 이후는 '28~'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한 뒤, 2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
- 다만, 공시 첫 해에는 연결기준 자산·매출 모두 10% 미만인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모회사 공시 범위에서 제외. 공시 제도 확정으로 공시 대상 기업이 '28년 107개사, '29년 157개사로 늘어나며, '30년 2조원으로 추가 확대 시, 259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ESG 정보 공시 의무화 일정



자료 : 법제처, KRX,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 변경 사항

- 2월 초안은 거래소 자율공시를 먼저 도입한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2단계 방식을 제시했으나, 확정안에서는 '28년(FY2027)부터 곧바로 법정공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공시 시점도 3월말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공시와 일치시켜 적시성과 활용도를 높임
-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초 배출권거래제 결산시점(반기)에 맞춰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배출량 검증기관의 검증수치를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3월말에 공시하는 것으로 확정
- 면책 관련 내용은 초안보다 확대.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ESG 공시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6.02 초안	2026.07 확정안
적용 대상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2028년, FY2027)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2028년, FY2027)
공시 방식	공시 방식 2단계 (거래소 공시 → 법정공시)	법정공시
공시 시점	공시 시점 사업보고서와 동일 시점 공시(3월말) (단,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 공시)	사업보고서와 동일 시점 공시 (배출량 정보도 3월말 공시)
면책 범위	예측, 추정정보	3년간 공시정보 전체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대상 제외 이후에도 추정치, 제 3자 정보 면책 유지
Scope 3	2031년부터 공시 (3년 유예)	첫 대상기업 2031년부터 공시 (3년 유예)
제3자 인증	초기 자율적 인증 (단계적 의무화)	2030년부터 의무화

자료 : 금융위,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국내 ESG 공시 확정에 따른 기업 영향

- 공시 기준이 연결자산 30조에서 10조원으로 낮아지면서 중견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초기 공시 대상에 포함
- 기업의 대응 초점도 단순한 배출량 측정에서 기후리스크 식별, 시나리오 분석, 재무영향 평가로 확대
- 고탄소 다배출 업종은 기술전환 불확실성, Scope 3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확보로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대
- Scope 3는 3년을 유예하여 '31년부터 적용함.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 제외
- Scope 3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주력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정 가이드라인을 '28년까지 마련할 예정

국내 ESG 공시 확정에 따른 기업 영향

구분	주요 영향	기업 대응
공시 대상 확대	- 연결자산 기준이 30조원 → 10조원으로 낮아지면서 10~30조 원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공시 대상에 포함됨 - 2028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총 84개사로, 공시 적용 예정인 기업 107개사의 78.5% 수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경험이 없는 기업은 연내 관련 조직 정비, 인력, 시스템 등 ESG 공시 인프라 구축 필요
기후리스크 대응 중심으로 전환	-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기회가 전략과 재무에 미치는 영향, 노력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 -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됨	-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중 연결자산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곳은 1% 수준에 불과 - 대다수 기업이 연결자산 기준으로 배출량 재산정 필요
고탄소 업종 부담 확대	- 철강, 정유 등 고탄소 다배출 업종의 경우, 기술전환 로드맵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 어려움 - 해외사업장 배출량, 원료조달 등 Scope3 산정을 위한 부담 증가	-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반영 필요 - EU CBAM 적용 기업: CBAM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까지 반영 필요

자료 : 금융위,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KSSB 기후 공시 주요 내용

- KSSB 공시기준 제 1,2호는 ISSB 공시기준 IFRS S1,S2를 기반으로 제정. 기후 외 항목, 산업기반지표, 내부탄소가격을 선택 공시로 두고, Scope 3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요구사항을 완화
- 금융위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부터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되, 세부기준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

KSSB 주요 내용 비교

구분	IFRS S1·S2(ISSB 국제 기준)	한국 공시기준서(제1,2호)
핵심 기준	글로벌 기준선	국제 정합성 유지 및 기업의 수용 가능성
공시 주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첫 해에만 기후 우선 허용)	기후 의무(기후 외 선택)
산업기반 지표	공시 요구 SASB 참고 및 적용 가능성 검토 의무	선택 공시
Scope 3 유예	1년	대상군별 3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참고: 국내 ESG 공시 가이드라인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ESG 중 'G' 주주,이사회, 감사 기구 관련 핵심 원칙을 기재
- 'E와 S' 즉, 환경과 사회에 관련된 정보 부족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 15개

구분	핵심 지표
주주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 정책, 배당 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비상 시 선임 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내부 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 존재
감사 기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 접근 가능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자료: KRX,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참고: 국내 ESG 공시 가이드라인 (2) 지속가능보고서

- 지속가능보고서는 2021년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SG정보공개 가이드스'에 따라 작성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권고 지표

구분	항목	지표	비고
조직	ESG대응(1)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 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평가(1)	위험/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1)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환경	온실가스배출(3)	Scope1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장치나 공정에서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배출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3)	직접에너지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에너지사용량	판매제품의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사용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1)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1)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법규위반/ 사고(1)	법규위반/ 사고	환경 법규 위반 및 환경 관련 사고 건수와 조치 내용
사회	임직원 현황(4)	평등 및 다양성	성별과 고용형태별 임직원 현황, 차별 관련 제재건수 및 조치 내용
		신규고용/이직	신규 고용 근로자 및 이직 근로자 현황
		청년인턴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안전/보건(3)	산업재해	업무상 사망, 부상 및 질병 건수 및 조치 내용
		제품안전	제품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 내용
		표시/광고	표시와 광고 규제 위반 건수 및 조처 내용
	정보보안(1)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1)	공정경쟁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자료: KRX, 현대차증권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Appendix 1. 용어 정리

-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 CSDDD(Corporate Sus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 CSRD(Corp.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
- E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
-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지속경영가능성보고표준)
- GHG(Greenhouse Gas Protocol; 온실가스 프로토콜)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협의체)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보고지침)
- 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기술적 세부규칙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 SFAP(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지속가능금융행동계획)
-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 VRF(Value Reporting Foundation; 가치 공시 재단)
- VSME(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non 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VS; 중소 · 중견 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기준)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Appendix 2. ESG Report 주요 발간 자료 목록

No.	발간일	제목
1	2021.3.17	ESG 투자의 시작
2	2021.9.27	그린스완, 탄소중립 정책과 투자 리스크
3	2021.9.30	ESG 리서치 통합 보고서: 개념과 전략 그리고 주요 기업 분석
4	2022.3.21	ESG 리서치 통합 보고서: K택소노미, 탄소배출권 & 주요기업 분석
5	2022.9.16	그린워싱 & ESG 공시 빅뱅
6	2025.03.21	탄소배출권 그리고 주요 기업분석
7	2025.08.06	ESG Report - 전환금융과 ESG 채권 & 주요 기업 분석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Compliance Notice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이화진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

감사합니다



CUSTOMER
CUSTOMER



CHALLENGE
CHALLENGE



COLLABORATION
COLLABORATION



PEOPLE
PEOPLE



GLOBALITY
GLOBALITY